

楚國의 服飾文化가 漢朝 服飾文化形成에 미친 영향 研究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교수 정 하 신

目 次	
I. 序 論	III. 漢朝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制 度
1. 研究目的	1. 漢朝의 歷史文化的 背景
2. 研究範圍 및 內容	2. 漢朝의 服飾制度
3. 研究方法	IV. 漢朝와 楚國의 服飾文化的 相關性
II. 楚國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制度	1. 歷史文化的 背景 側面
1. 楚國의 歷史文化的 背景	2. 出土 遺物상으로 본 服飾制度
2. 楚國의 服飾制度	V. 結論 및 要約
	參考文獻

I. 序 論

1. 研究目的

戰國時 中原의 霸者로 등장하여 B.C223年 秦의 天下統一로 인해 敗亡時까지 거의 400餘年間 군림하여 왔던 楚國은 春秋時代 까지만 해도 中原에 대해 異民族이었다.

楚國의 服制는 秦의 統一 14年後 등장한 漢王朝의 通用服 및 禮服制의 基本이 되었고 後漢에 와서는 法定冠服制의 根幹을 이루고 이후 中原을 中心으로 주변 諸國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古代中國에서 歷史 발전에 따라 興하고 亡하였던 楚國과 漢王朝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王朝 建立 勢力의 背景과 服飾制度의 特性을 考察하여 漢의 服飾文化는 楚의 服飾文化의 지대한 영향하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 문헌 근거적 자료를 제시하고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範圍와 內容

範圍는 B.C4000年 경부터 A.D220年 까지의 楚와 漢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制度를 考察하여 古代中國歷史 형성 시기에 興하고 亡하였던 楚와 漢, 두 王朝의 服飾文化의 유사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內容은 楚國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制度, 漢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制度, 楚國과 漢朝의 服飾文化的 相關性을 비교 考察한다.

3. 研究方法

正史類, 總書類, 其他文獻史料와 出土遺物 考古學 資料 등을 中心으로 考察한다.

II. 楚國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 制度

1. 楚國의 歷史文化的 背景

長江의 中南方 異民族들을 鬲嶺時代에는 '九黎'라 하였고 鬲嶺 以後에는 '三苗'라고 했다.

즉 炎皇帝時代에 南에는 '黎'와 '苗'族이 살고

있었다.¹¹⁾

·上古에는 江漢地區가 모두 '黎'族의 境界였고²⁾
'九黎'는 지금의 苗族이다.³⁾

·三苗 九黎는 上古時代에는 異民族이었으며
그 民族들은 항상 漢族과 투쟁하였다.⁴⁾

·三苗는 九黎의 後裔이다.⁵⁾

·三苗는 江淮와 荊州에 있다.⁶⁾

·苗는 後世의 蠻이며 苗族이다.⁷⁾

·4000년전 쯤에는 오늘날 湖北과 湖南, 江西 등
지에 苗族이 占領하여 살고 있었다.⁸⁾

·漢族이 中國에 들어오기 이전 中國의 中部와
南部에는 본래부터 苗族이 살고 있었다.

漢族이 中國에 들어온후 最初의 接觸은 苗族과의
接觸이었다.⁹⁾

즉 中國史上 漢族과 異族의 第一次 戰爭은 漢族
의 領袖인 皇帝와 苗族의 酋長인 蚩의 戰爭이
最初인것으로 記錄하고 있으며 太古이래 '九黎'
'三苗'등으로 불리워오던 異族은 殷代에 이르면
'荊'으로 불리워진다.

즉 '荊'族에 대한 記錄은 殷代에 이미 볼수 있었
으며¹⁰⁾ '荊'人들은 楚國의 先民이며 蜀國의 東쪽에
居住하여 처음에는 '荊'이라고 하였으나 뒤에 '楚'
라고 改號하였다.¹¹⁾

'荊楚'族은 長江 流域의 중간 지점에 居住하였었
다.

春秋初期까지 '蠻夷' 혹은 '荊蠻'으로 불리었던

이들은 春秋期에 '楚國'이라는 명칭으로 開國 稱王
하고 中原에 대두 莊王時(B.C613~591) 中原의
霸者가 되어 戰國時에는 南方의 最強國이 되었다.¹²⁾

즉 荊人들이 '楚'國을 세웠고 이들은 春秋時까지
도 '蠻夷', '蠻荊' 또는 '荊蠻'으로 불리었다.¹³⁾

또한 楚는 自稱하여 우리는 '蠻'이다 라고 하였으
며 三苗로 부터 楚가 派生되었다.¹⁴⁾라고 보는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

즉 中原에 대해 太古이래 철저한 異民族이었던
楚國은 春秋末年에서 戰國中期까지 시종 四方으로
地盤을 계속 확대 하였다.

한쪽에서 沮止당하면 또 다른 한쪽으로 쉬지않고
넓혔으므로 楚는 列國가운데 領土가 제일 廣大
하였고 B.C344년에 越을 멸한후에 北쪽은 河南省
中南部와 山東省 南部 東은 浙江沿海 西는 陝西省
南部와 四川省 東部 西南은 貴州省 東北部 南은
五嶺一帶에 달하였다.

楚國은 이와같이 領土만 廣大하였을뿐 아니라
戰國初에서 中期까지 큰 戰爭을 겪지 않았기 때문
에¹⁵⁾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당시의 中原은 南의
楚와 北의 晉, 兩大 勢力圈으로 分離 形成되어 있었
다.¹⁶⁾

楚는 春秋末境 吳에게 敗하여 얼마동안 國勢를
떨치지 못하더니 뒤에 다시 勢力을 회복하여 北으로
陳, 蔡를 滅하여 淮水流域을 차지하고 南으로
浙江地方의 越을 併合하였으며(B.C334)다시 그의

1) 廖鳳林, 「中國通史」, 「炎皇之區 南有黎苗」

2) 上掲書, 同面 「大抵上古之時江漢之區 皆爲黎境」

3) 林惠祥, 「中國民族史」, (上海: 文藝出版社, 1990), p.105. 「九黎爲即, 現在之苗」

4) 林惠祥, (1990), 上掲書, p.106. 「三苗, 九黎...古時之, 異民族, 其族常與 漢族鬭爭...」

5) 上掲書, 同面, 「三苗爲九黎之後裔」

6) 上掲書, p.107, 「三苗在江 淮荊州...」

7) 上掲書, 同面, 「苗爲即後世之蠻, 或苗者...」

8) 王桐會, 「中國民族史」,

9) 烏居龍藏 「苗族調查報告」

10) 林惠祥, (1990), 前掲書, p.11.

11) 壬乃強者, 「四川上古史新探」,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1986), p.98. 「荊在蜀國之東...荊始改號曰楚...荊人則
吳楚國先民之族...」

12) 林惠祥, (1990), 前掲書, p.11.

13) 呂思勉, 「中國民族史」, (香港: 高務印書館), 1978, p.10.

14) 林惠祥, (1990), 前掲書, p.105. 「楚自稱曰 '我蠻夷' 則三苗必爲楚先」

15) 傅樂成外著, 辛勝夏譯, 「中國通史上」, (서울: 宇鍾社, 1974), p.74.

16) 李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 (서울: 新書苑, 1986), p.99.

勢力은 湖南 貴州方面까지 미쳐 南方의 大國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楚는 天下의 強國이었으며 땅은 西쪽으로는 黔中 巫郡이었고 東쪽으로는 夏州 海陽이 있으며 南쪽으로는 洞庭 蒼梧가 있고 北쪽으로 汾陘의 塞과 郟陽이 있어 라고 하여 楚國의 疆土는 廣闊하였으며 強盛時에는 長江의 中下流地域 모두를 楚國이라고 하였다고 볼수있다.

뿐만아니라 楚의 共王(B.C590-560)時 '南越'을 복종시키고 오늘날의 廣東省방면으로 진출하여 海港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戰國末 쇠약해지고 西北쪽에서 秦族이 強大해지면서 B.C740-223년까지 지속되어온 楚는 秦에 의해 멸망되었다.

2. 楚國의 服飾制度

出土物을 中心으로 上古이래 戰國末까지 楚國의 服飾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河南信陽 光山縣 黃君 孟婦夫墓 出土服飾

B.C648 春秋初期로 推定하는 古墓¹⁷⁾에서 偏左高髻하고 髮髻위에 2個의 木笄을 꽂고 있는 40세 前後 女性의 頭髮이 거의 良好한 상태로 출토되었고 玉飾物 외에는 대개 부식하고 신은 麻鞋를 着用하고 있었다.

(2) 湖北 隨縣曾侯2墓 및 江陵兩台山 楚墓 出土服飾

B.C433년경 戰國初期 楚國의 武士로 추정하는 銅人이 湖北省 隨縣曾侯2墓¹⁸⁾에서 出土되었다.

編鐘武士人形은 머리에 擔이 좁고 高頂의 6角筒形 冠帽에 窄袖 交領 右衽의 斗부선 길이 上衣에 下衣는 地面에 닿는 길이의 百褶裙을 着用하고

布製束帶 하였는데 左側 腰間에 佩劍 하였다.

또한 湖北省 江陵兩臺山 楚墓出土 彩繪木俑은 窄袖 筒形交領 右衽의 斗부선 길이 上衣에 발목길이의 앞중심 부분에만 몇개의 細褶이 있는 下裳(裙)을 着用하고 左側 胸部에서 부터 上衣上端까지 길이를 길게 내려뜨린 1組와 右側腰部에 1組의 佩玉을 내려 드리우고 있다.

(3) 長沙¹⁹⁾ 子彈庫 楚墓 出土 帛畫²⁰⁾服飾 高冠을 着用하고 長纓을 턱아래 내려 묶었다.

衣服은 寬袖 交衽上衣에 땅에 끌리는 길이의 下裳을 着用하고 佩劍하였다.

(4) 長沙 陳家山 楚墓出土 帛畫²¹⁾婦女服飾

婦女는 方額平梳하였고 胸後에 髮髻하였다.

髻는 布繪類로 묶어주었다.

衣袖는 琵琶袖이며 袖口는 좁다.

服飾은 당시 婦女들의 平常服이었고 上衣下裳式으로 裳은 上衣위에 여며입는 着裝方式이며 裳은 땅에 끌리는 길이이다.

(5) 長沙 仰天湖 出土服飾

長沙仰天湖에서는 楚人들의 冠帽와 衣裝形象을 볼수있는 木俑4種의 異木俑들이 出土되었다.²²⁾

즉 ①男女侍從俑 ②武士俑 ③伎樂俑 ④貴族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俑들의 衣服은 東周이래 齊國이나 魯國 등에서 着用되어 오고 있는 寬袍大袖衣와는 현저하게 다른데 男女모두 길이가 긴 長衣이며 領緣이 비교적 넓으며 繞襟衣이다.²³⁾

衣服은 특히 화려하고 衣上에는 雲紋點雲紋 小簇花等 紋樣이 있고 紋樣은 印繪綉等 多樣하다.

緣邊에는 織錦紋을 사용하였다.

(6) 長沙楚墓 出土 木俑服飾²⁴⁾

17) 河南信陽地區 文管會, 「春秋早期黃君 孟夫婦墓發掘報告」考古, 1984, 4, pp.302~332.

18) 潘清俊, 「湖北隨縣曾侯2墓」, 「往來成古今」, (台北: 錦繡出版有限公司, 1990), pp.120~125.

墓中 銘文으로 보면 楚惠王56年(BC 433) 曾國의 侯2이 去世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曾侯2를 위해 鑄鐘을 만들어 보낸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楚國에서 定한 楚國人 服飾制度를 着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 長沙는 湘江下流 東岸에 위치하며, 春秋戰國時代부터 楚國의 중요한 邑鎮이었고, 秦이 郡을 설치하였다가 西漢代 楚國으로 바꾸었다.

20)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高務印書館, 1981), p.24.

21) 上掲書, p.25.

22) 上掲書, p.26.

23) 上掲書, p.27.

24) 上掲書, 同面

俑들은 袍 혹은 禪衣를 着用하였으며 形制는 交領이며 領袖裾에 緣飾을 하였다.

女俑의 머리는 뒷목부위에서 고리를 만들고 아래로 내려뜨렸고 비교적 길이가 짧은 袍 혹은 禪衣着裝樣式이며 內下衣로서 裳아래 寬口裾를 着用하고 있다.

男俑은 繞襟의 袍를 着用하고 있다.

(7) 河南省 信陽市 楚墓

長台關 西北쪽에서 1956年 봄 第1號 楚墓라고 命名한 古墓가 發現되었고 1957年 3月에는 第2號 楚墓라고 命名한 古墓가 發現되었다.²⁵⁾

墓의 年代는 대체로 3種의 意見이 있는데

① 春秋晚期²⁶⁾ ② 戰國中 晚期²⁷⁾ ③ 戰國早期²⁸⁾ 등의 의견이 있다.

그러므로 春秋末期에서 戰國末期 사이의 墓임을 알수있겠다.

墓主人은 一般庶民이 아니고 士大夫신분의 貴族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⁹⁾ 一號墓에서는 903件의 遺物이 出土되었으며 二號墓에서는 414件의 遺物이 出土되었다.

1) 二號墓

二號墓에서는 10件의 木俑이 出土되었다.

立俑은 圓頂에 直身이며 얼굴과 손은 모두 紅色이고 肩, 眼, 口와 髮은 모두 黑色이다.

수장당시에는 衣類를 着用하였으나 出土 당시는 부패하고 없었다.

長衣를 着用하고 있는 俑은 먼저 髻를 만들고 나중에 얼굴 손 눈 입 머리등을 彩色하였으며 立俑과 同色이다.

衣服은 交領右襟 寬袖 長衣에 袖口는 小口이다.

邊緣은 菱紋飾을 하였다. 胸 腹部에 그림으로 珠璜 彩結과 彩環等을 組成하여 만든 飾物을 佩用하고 있었다. 珠璜은 白色이고 彩結은 紅色이며 繩紐와 彩環는 橙黃色이다.

上部를 교차시켜 錦帶로 彩結과 彩環를 만들고 아래를 左右로 나누어 위로부터 아래로 각각 5珠를 꿰다음 彩結과 彩環에 玉璜을 연결시킨 다음 璜아래 다시 3珠를 꿰고 彩結 彩環하였다.

俑의 背後 허리 中間에는 紅 黃色의 三角紋이 있는 錦帶를 하였다.

背後부터 衣邊의 褶襟處에는 內衣가 겹으로 보이게 되어있는 衣服을 着用하고 있다.

이상은 戰國時 楚國의 衣服樣式을 짐작하게 하여 주는것으로 交領 右襟, 束腰 長衣에 珠, 璜, 彩環等의 佩飾品을 佩用하는 制度가 一般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³⁰⁾

(8) 江陵 馬山一號 楚墓 出土服飾

1982年 1月 湖北省 荊州地區 博物館에서는 戰國 中期 혹은 後期(B,C 3C)추정되는 楚國의 '馬山一號 楚墓'라고 命名한 古墓를 발굴하였다.³¹⁾

尸身은 13層의 衣衾包와 衣服類에 싸여 있었다.

가장 外層 第1層부터 4層까지는 衣衾包이고, 第5層부터는 衣服類인데 第5層은 深黃色의 絹面綿袍이고 第6層은 龍 鳳虎紋綉羅單衣, 7層은 鳳鳥花卉紋綉淺黃絹面綿袍, 8層은 單衣, 9層은 一鳳一龍相蟠紋綉紫紅絹單衣, 10層은 對鳳對龍紋綉淺黃絹綿袍, 第11層은 小綾形紋錦面綿袍, 12層은 小綾形紋錦面綿袍, 第13層은 錦巾과 單裙으로 덮여있었다.

13層의 錦袍는 右襟이며 着用하면 左襟이 된다. 紐는 없다 黃色紐帶를 사용하여 여며 주었다. 앞허리 部分에서 맺었다.

腰帶左側에는 佩飾을 하였다.

死者가 입고 있는 옷을 가장 外層에서 부터 살펴보면 E形大稜形紋 錦面綿袍(N19), 舞鳳飛龍紋綉土黃絹面綿袍(N22), 深黃絹面夾衣(N23)의 上衣와 下衣로 深褐色絹裙(N24)을 着用하고 裙아래에는 綿袴를 着用하였는데 袴는 鳳鳥花卉紋綉紅棕絹面製이다. 足衣로는 土黃色 麻鞋를 着用하고 있다.

25) 河南省 文物 研究所, 「信陽楚墓」, (北京: 文物出版社, 1986).

26) 郭沫若, 「信陽楚墓의 年代與國別」, 文物, 1958. 1.

27) 中山大學學報, 「望山一號墓〈江陵昭固墓〉若干問題的探討」, 1977.1.

28) 文物參考資料, 「信陽 長台末 發掘一座戰國大」, 1957. 9.

29) 上揭書, p.122.

30) 上揭書, pp.114~116.

31) 湖北省 荊州地區 博物館, 「江陵馬山一號楚墓」, (北京: 文物出版社, 1985), pp.1~119.

〈表1〉馬山1號楚墓 出土服飾(袍, 衣, 裙)의 實測置

〈表1〉袍, 衣, 裙, 實測表

단위:cm

圖本	名 稱	身長	領緣寬	袖展	袖寬	袖口寬	袖緣寬	腰寬	下擺寬	緣寬	保存情況
N1	素紗綿袍	148	4.5	216	35	21	8	52	63		面已朽蝕
N22	無鳳象尤紋綉土黃絹面綿袍	140	3.1		35	20	9.5				殘損嚴重
N10	鳳鳥花卉紋綉淺黃絹面綿袍	165	6	158	45	45	11	59	69	8	
N14	對鳳對尤紋綉淺黃絹面綿袍	169	9	182	47	47	17	66	80	11	
N15	小菱形紋錦面綿袍	200	6	345	64.5	42	10.5	68	83	6	
N16	小菱亨紋錦面綿袍	161	6	277	40	36.5	15	66	79	12	
N19	E型大菱形紋錦面綿袍	170.5	10.5	246	41	34	12	78	96	22	
N8	深黃絹面綿袍	171.5	4	166	41	33.5	17		73	6	殘損嚴重
N13	一鳳一尤相蟠紋綉紫紅絹單衣	175	5	274	48	40	1	65	80	12	部分殘損
N9	尤鳳虎紋綉羅單衣	192	4	276	50.5	33	5.5	67	60	7	部分殘損
N12	單衣	約171	5			34	15			18	仅存衣, 領, 袖緣
N23	深黃絹面夾衣	約101	5			19	10			5	殘損嚴重
N17-3	深黃絹單裙	82						181	210.5	13	部分殘損
N24	深褐絹單裙	99						約156	171	12	殘損嚴重

1) 江陵馬山 1號楚墓에서 出土된 ‘袍’類8件은 바느질 方法이 正裁³²⁾와 斜裁 2種으로 나눌수가 있다.

① 小菱形紋 錦面綿袍(N15)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하여 보면 袍의 안과 겉은 같고 袍는 上衣와 下裳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가) 上衣는 8片의 錦과 綿 직물류로 正裁되었었다. 즉 正身2片과 雙袖 各3袖인데 正身2片의 넓이는 32cm이고 袖部3片의 넓이는 각각 42, 43, 45cm 크기였다.

8片은 併合한후 다시 아랫변을 縫合하였다. 雙袖와 正身은 腋下에서 서로 만나게 하였다. 소매는 길이 37cm 넓이 24cm 크기의 長方形 巾을 사용하였다. 長袖이며 袖下는 狐狀이다.

겨드랑이 아래는 三角形의 무를 대서 上下 운동이 자유롭게 해주었다.

領緣은 花絲帶로 만들었고 正裁였다. 大襟部分에서 아래로 44cm가량 緣飾을 하였다. 交領右衽 直裾이다.

나) 下裳은 모두 5片으로 되어있고 모두 正裁이다.

大襟과 小襟 正面 兩片의 넓이는 각각 45cm 크기이다.

기타 3片의 넓이는 각각 41cm 크기이다. 裾緣과 下環線은 모두 直線裁斷이다.

② 素紗綿袍(N1)
가) 上衣部分은 裁縫方法이 (N15) 袍와 다르다.

正身과 雙袖 모두 斜線 裁斷을 하였고 8片으로

32) 直線裁斷으로 생각됨.

하였다.

넓이는 23, 26, 26, 17cm크기이며 袖緣과 領緣 모두 斜線 裁斷方法으로 하였다.

後領은 凹形이며 兩袖는 거드랑이 아래 부분은 넓고 袖口 부분은 좁은 斜線形이다.

交領右衽 直裾形이다.

나) 下裳部分은 正裁方法으로 裁斷하였는데 모두 8片이고 각片的 넓이는 20~37cm크기였고 下環緣은 없었다.

③ 鳳鳥花卉紋綉淺黃絹面綿袍(N10)

가) 上衣는 4片으로 이루어 졌고 그중 正身兩片의 각넓이는 29cm크기이고 兩袖 各1片으로 구성되었는데 각片的 크기는 39cm 크기이다.

上衣의 下部는 모두 三角形 綫의 무를 부착하였다.

兩袖는 平直이며 袖口는 넓고 短袖筒으로 되었다.

領은 三角形이며 交領右衽 直裾이다.

나) 下裳은 9片으로 되었고 각각 넓이는 15 20 5, 21 22 23.5, 22.5 22, 15.5 15cm크기이다.

兩襟의 넓이는 각각 9cm 넓이이다.

④ 對鳳對龍紋綉淺黃絹面綿袍(N14)

가) 上衣는 4片으로 되어있고 그중 正身은 2片이고 각각의 넓이는 35cm 兩袖는 各1片으로 되어있고 每片的 넓이는 37cm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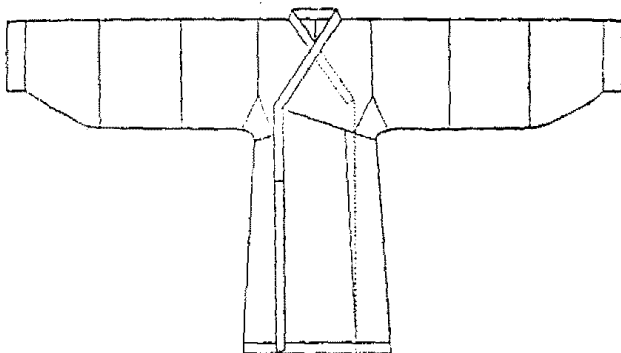
領部와 袖緣은 모두 條紋錦으로 처리하였다.

交領右衽 直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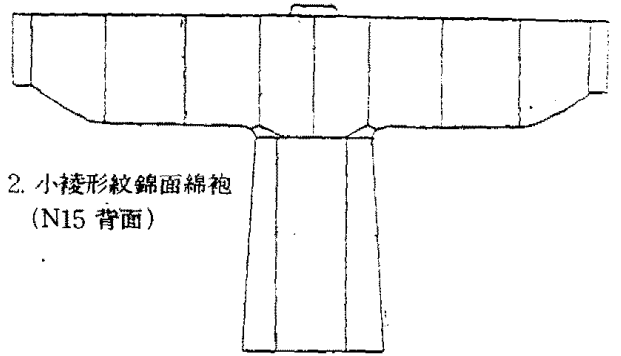
나) 下裳은 6片이고 각각 넓이는 38.32.22, 32.39.16cm크기이다.

안과 겉의 襟緣의 넓이는 각각 9.11cm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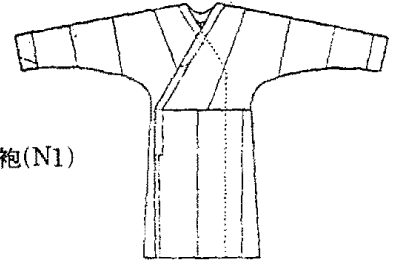
〈圖1〉 綿袍와 單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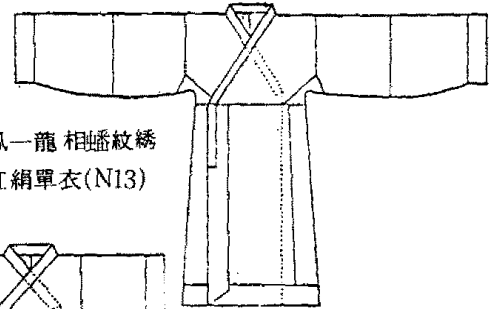
1)-① 小稜形紋錦面綿袍(N15 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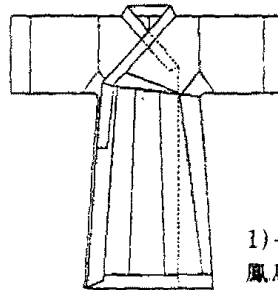
2. 小稜形紋錦面綿袍 (N15 背面)



1)-② 素紗綿袍(N1)



2)-① 一鳳一龍 相蟠紋綉 紫紅絹單衣(N13)



1)-③ 鳳鳥花卉紋綉淺黃絹面綿袍(N10)

⑤ 小稜形紋錦面綿袍(N16)

가) 上衣는 6片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正身은 2片이다.

각片的 넓이는 32cm정도이고 兩袖는 各 4片인데 左袖 2片은 각각 넓이가 39, 47.5cm이다.

外側 1片은 2小片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右袖 2片의 넓이는 34.5cm 52cm크기이다.

外側 1片도 2小片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交領右衽 이며 直裾이다.

나) 下裳은 4片으로 만들었고 각넓이는 34, 42, 45, 44cm크기이다.

內外襟緣의 넓이는 각각 12cm이다.

⑥ 大稜形紋錦面綿袍(N19)

가) 上衣는 6片으로 되어있고 正身은 2片으로

되어 있고 각 넓이는 45cm 兩袖는 각 2片으로 되어 있고 각각 넓이는 21cm 45cm크기이다.

領과 袖緣은 모두 條紋錦으로 되어있고 交領右衽이며 直裾이다.

나) 下裳은 5片으로 되어있고 각각의 넓이는 32 48.5 47.5 47.5 35cm크기이고 內外襟緣의 넓이는 15.22cm크기이다.

2) 單衣는 3件이 出土되었는데 單衣 역시 袍와 마찬가지로 上衣와 下裳을 連接 하여 만든 제도이다.

① 一鳳一龍相蟠紋綉紫紅絹單衣(N13)

가) 上衣는 6片으로 만들었는데 正身은 2片이다.

각각의 넓이는 38cm 兩袖는 각각 2片으로 되어 있고 넓이는 45. 43cm크기이다.

交領右衽이고 直裾이다.

나) 下裳은 5片으로 만들었는데 넓이는 각각 42 42 43 45,22cm 크기이다.

外襟緣의 넓이는 12cm크기이다.

② 龍鳳虎紋綉羅單衣(N9)

가) 上衣는 6片으로 만들었고 그중 正身 2片은 각각 넓이가 40cm크기이다.

兩袖는 각각 2片으로 되었는데 넓이는 46, 46.5cm크기이며 交領右衽 直裾이다.

나) 下裳은 6片으로 만들었고 넓이는 32, 31, 45 28, 38, 25cm크기이다.

外襟의 넓이는 12cm크기이다.

3) 裙은 單裙 2件이 出土되었다.

① 深黃絹裙(N17-3)

펼쳐놓은 모양은 부채를 펴놓은 모양과 같고 腰部分은 좁고 下環은 넓다.

裙面은 8片으로 만들었으며 넓이는 27, 27, 27.5, 26, 27, 24, 27, 26cm크기였다.

下環은 緣飾 넓이는 12.5cm크기로 大綾形紋錦으로 하였다.

4) 고는 綿袴1件이 出土되었다.

① 鳳鳥花卉綉紅棕絹面綿袴

袴는 袴腰와 袴脚으로 組成되어있고 袴腰는 灰白色絹 4片으로 만들었고 袴脚위에 2片씩 連接하였다.

각片的 넓이는 30.5cm이고 길이는 45cm이다.

袴脚은 4片인데 左右脚은 각각 2片으로 만들었다.

그중 1片은 넓이 50cm 길이 61cm의 正幅絹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1片은 半幅絹으로 만들었는데 넓이는 25cm 길이 59cm크기이다.

袴脚上部에는 길이 12cm 넓이 10cm크기의 長方形 袴敞이 부착되어 있다.

접어서 三角形 모양을 만든후 넓은 쪽이 袴腰에 相接하여 있고 좁은쪽이 袴脚에 부착되어 있다.

袴脚의 아랫쪽은 길이가 32cm이고 넓이가 9cm정도되는 條紋錦邊飾을 하여 小口袴를 만들었다.

袴脚上部와 袴腰는 서로 連接하였으나 袴腰의 뒷부분은 敵開形으로 開襟袴를 형성하였다.

袴腰는 총 넓이가 95cm이고 袴長은 총길이가 16cm크기이다.

이외에도 8件의 木俑이 出土되었는데 그중 彩繪 着衣女木俑은 4件이다.

머리모양은 뒤로 모두 넘기고 양귀뒤로 넘겨 뒷목중심에서 하나로 모아 帶로 묶고 垂髮하였다.

衣服은 交領右衽의 衣服모양을 彩色으로 나타내고 위에 無領 無袖 上衣를 着用한후 下衣로 裳을 着用하였는데 왼쪽으로 여미고 여밈자락은 등뒤쪽에서 帶에 꽂았다.

허리에는 넓이 2.3cm 길이 19.2cm 크기의 黑色皮帶를 하였다.

皮帶의 양쪽 가장자리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黃色錦帶와 서로 연결하였던 흔적인듯 하다.³³⁾

Ⅲ. 漢朝의 歷史文化的 背景과 服飾 制度

1. 漢朝의 歷史文化的 背景

秦은 戰國七國중 가장 낙후하였으나, B.C.461년 경, 西戎과의 싸움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孝公(B.C.361~338)時 軍士大國으로 비약하였다. 大國으로 비약한 秦은 B.C.352년 魏를 공략하고, 340년 다시 魏를 쳐서 前에 魏에게 상실당하였던 河西지역을 탈취하였다. 秦은 계속적으로 주변의 小國을 멸하고, 세력을 확장시켜 春秋時代 晉, 楚間의 南北對立은 戰國代에 이르러서는 秦과 6國간의

33) 湖北省 荊州地區 博物館, (1985), 前掲書, pp.80~81.

東西對立으로 바뀌었으며, 6國中 가장 대표격이던 楚國이 秦에 계속 대패하여 漢水上流에 위치한 漢中지역을 빼앗기므로 楚의 위신과 국력은 크게 손상되었다. 楚가 급격히 쇠퇴하여 6國中 秦을 대적할 強國이 없게 되자, 秦은 꾸준히 강성하여 차례로 6國을 잠식하였다. B.C221년 최후로 齊를 멸하고, 최초로 中國을 통일하였다. 이후 秦帝國은 法治의 지나친 강행과 무리한 役事의 강행으로 14년만에 망하고 말았으나, 秦帝國的 皇帝制度의 설립과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의 완성 및 諸統一政策은 歷代王朝의 귀감이 되어 中國歷史展開에 실로 원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B.C 211년, 始皇帝死後 二世皇帝의 失政으로 前代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강압과 연속되는 暴政에 시달리다 못하여 全國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최초의 반란은 秦二世元年(B.C 209) 7月, 陳勝, 吳廣이 泗水郡 蕪縣의 大澤鄉³⁴⁾에서 일으킨 것이었다. 兩人은 起兵한 후 陳³⁵⁾에서 開國, 稱王하고, 國號를 '長楚'³⁶⁾라고 하였다. 이는 秦에 멸망당한 12년뒤 楚의 興起의 一面이라고 볼 수 있다.

秦二世 元年(B.C. 209) 9月에는 長江 南岸, 會稽郡治下의 吳縣³⁷⁾에서 項染과 그의 조카 項羽가 起兵하였다. 뿐만 아니라 陳勝이 起兵하자, 또한, 沛人들이 沛수를 죽이고 劉邦은 沛, 豐, 碭 등 縣을 취하고 項染에게 歸附하였다. 項染은 楚의 故地에 懷王의 孫을 찾아 王으로 옹립하고 楚懷王이라 하여 楚人의 秦에 대한 억눌렀던 感情을 격발시켰다.³⁸⁾

말하자면 이로서 楚멸망 14年後 秦과 楚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楚國의 將軍으

로 등용된 劉邦은 秦二世 二年末, 楚懷王의 命을 받고, 西進하여 藍田⁴⁰⁾以南에 이르러 秦軍을 大破하고, 秦의 수도, 咸陽으로 진격하였다. 이미 關中까지 진격하여 온 劉邦에게 3世 皇帝 子嬰은 옥쇄를 바치고 항복하므로 秦은 2世 3年 9月 3代 14년만에 멸망하였다.

秦이 멸망하자 楚國의 上將軍項羽는 懷王을 義帝로 추대하고, 彭江上流의 小地域을 주고 郴⁴¹⁾에 都邑하게 하였다.

그리고 項羽 자신은 西楚의 霸王으로 자처하고, 舊 魏楚의 故地 9郡을 장악하고 彭城에 都邑하였다. 그리고 이밖에 각지에 有功者를 18王으로 分封하면서 劉邦에게는 漢中, 邑,⁴²⁾ 蜀 4郡을 주어 南鄭에 도읍하게 하고, 漢王에 封하였다. 劉邦은 당시의 地位는 楚國의 將軍이었다.⁴³⁾ 그러나 項羽의 무원칙적인 諸侯의 分封과 영토의 分配는 諸侯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그 중 漢中에 分封된 劉邦의 불만이 가장 컸다.

項羽의 이같은 諸侯의 分封은 統一된 帝國의 秦이 수립한 郡縣制度를 부정하고 봉건제도에 의한 諸侯分立의 현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諸侯間의 불평과 충돌이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項羽는 이와같은 반란과 충돌에 전력하는 사이 漢王 劉邦은 關中으로 진출하여 병합하였고, 關中을 석권한 劉邦은 漢2年(B.C. 205) 10月 項羽가 義帝를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罪를 물어 起兵하였다. 이렇게 始作된 項羽로 대표되는 楚와 劉邦의 漢과의 투쟁은 계속되었으나 民生의 안정을 위해 和議하고 鴻溝⁴⁴⁾를 境界로 하여 天下를 東은

34) 지금의 安徽省, 宿縣南

35) 지금의 河南省, 淮陽縣

36) '張楚'라는 의미는 '大楚'라는 뜻인데, 이것은 秦에 멸망된 楚王朝의 부활을 주창한 것으로 楚百姓들의 民心을 규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李春植(1986) 前揭書, p.215.

37) 지금의 江蘇省 吳縣

38) 지금의 江蘇省 沛縣

39) 傅樂成外著, 辛勝夏譯 (1974) 前揭書, p.135.

40) 지금의 陝西藍田縣西

41) 지금의 湖南郴縣

42) 漢江上流, 陝西省 南部에 위치한 漢中은 원래 楚의 領地였으나 BC 312년 秦에 빼앗겼다. 秦惠公王10년, 秦이 계승한 地方行政구획으로 秦代에는 漢中郡이 되었다. 李春植(1986) 前揭書, p.125.

43) 傅樂成外著, 辛勝夏譯, (1974), 前揭書 p.138.

44) 지금의 河南省 滎陽縣

楚에, 西는 漢에 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B.C 202年 漢5年初 다시 出兵하여 西楚王 項羽를 추격하였고, 項羽는 쫓기다가 長江西岸의 烏江⁴⁵⁾에 이르러 自殺하고 말았다.

項羽를 烏江에서 敗死시키고, 秦以後 다시 중국을 再統一한 劉邦⁴⁶⁾은 B.C. 202년 漢5年 2月, 皇帝로 추대되고, 처음에는 洛陽에 都邑을 정하였으나, 5月에는 長安으로 遷都하였다. 이렇게하여 漢朝는 成立되고, 東, 西, 南, 北의 諸異族집단은 漢化하고 漢의 거대한 용광로속에 용해되어 버렸다.

2. 漢朝의 服飾制度

漢代의 記錄인 <詩經>에 보면, 上身服裝은 ‘衣’라 하고, 下身服裝은 ‘裳’이라 하였고, 春秋戰國以前 上古代는 常, 禮服 모두 着裝樣相이 上衣下裳 分離形이었다.

그러나 漢代 出土俑이나 壁畫, 石刻, 漢畫像石墓 人物像을 보면 上衣下裳 連接의 ① 寬袖長袍, ② 寬袖의 무릎, 장단지, 둔부선 길이, 長衣에 下衣로 大口袴, ③ 小袖의 長袍, ④ 小袖의 무릎, 장단지, 둔부선 길이, 長衣에 下衣로 小口袴, 着裝樣相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領形은 交領右襟에 束帶하였다. 이로부터, 漢代服制의 基本的인 樣相은 上衣下裳連接의 長袍制이거나, 長衣에 下袴 着裝樣相이 보편적이다. 後漢에 와서, 與服令을 발표하고, 冠服을 定制한 후, 定制冠服 中 朝服이 ‘上衣下裳連接의 袍’制가 되면서 ‘上衣下裳’ 分離形 服制는 法定冠服

制에서 着用者 身分범위는 男子用, 皇帝以下 百官 品官者의 祭服用에 한정되고, 燕居用으로는 男, 女, 老, 少 共用이었다.

上衣와 좁은 布幅을 連接하여 만들고 下裳은 腰部에서 連接한 新形服制는, 春秋戰國代⁴⁷⁾에 그 便宜性和 戰事目的⁴⁸⁾등에 따라 創制되고, 두루 着用되어 지는데, 上衣下裳을 連接하여 만드므로, 그 여밈이 앞중심에서 合襟되지 않고, 交領, 左, 右襟方法으로 양옆에 그 여밈이 있거나 더욱 깊이 감싸 줄 경우, 등뒤에 있게 되거나, 變形시킬 경우 曲裾襜褕襟形을 이루게 된다. 上衣下裳連接衣는 몸을 심수하게 감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름이 形容詞的 의미의 ‘深衣’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深衣’制라는 것은,

‘深衣’ 製作法에 儒教哲學의 意味를 부여하여 <禮記, 深衣編> 등에 記錄된 特定服 固有名詞化한 ‘深衣’와 구별되며

上衣下裳連接衣로서 腰部에서 布幅連接의 裳과 合縫한 形.

曲, 直裾兩者를 모두 포괄하는 形. 漢代 地域에 따라 그 異名이 여러이나 一般的으로 ‘禪衣(單衣)’ ‘襜褕’, ‘袍’등으로 불리운 服制形.

夾, 單兩者를 포괄하는 上衣下裳連接衣임을 定義하여 두고, 論理를 展開하고자 한다.

春秋戰國時 ‘吳의 東西쪽’에서 ‘禪衣’라고 한 形容詞的 의미의 ‘深衣’는 漢代, 특히 南東, 南西地域에서도 역시 ‘禪衣’⁴⁹⁾라 하였으며, 안이 없는 홑옷이었

45) 지금의 安徽省, 和縣, 東北

46) 前漢를 일으킨 劉邦(BC 206~195)은 원래, 오늘날의 山東省, 河南省, 安徽省에 둘러싸인 江蘇省 沛縣, 農邑의 農民집안 출신이었으며, 秦統一時, 秦始皇24년에 설치한 江蘇省西北部와 山東省交界 一帶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地方行政郡인 泗水郡의 亭長이었다. 劉邦의 고향인 沛縣은 春秋戰國時代에는 ‘齊’, ‘魯’, ‘宋’, ‘楚’, ‘吳’, ‘越’나라와 인접한 곳으로 ‘宋’에 속하였던 곳이다. ‘宋’에 속해있던 沛縣이 BC 286년 齊에게 멸망당하여 BC 286년부터 BC 221년 ‘齊’가 멸망하기까지는 ‘齊’에 속해 있었다. 인접해 있던 魯國은 BC 249년 楚에 병합되었으나 齊와 楚는 사이 좋게 秦의 공격에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楚國이 BC 223년 秦에게 멸망하고도 齊는 2년을 더 지탱하고 BC 221년 결국은 秦에 병합되었다. 그리하여 沛縣은 秦이 설치한 36個郡중의 하나인 泗水郡에 속하였다.

47) 周迅外著, 「中國歷代婦女裝飾」,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88), p.202.

48) 禮記, 深衣

49) 吳의 東쪽이나 서쪽지역에서 ‘禪衣’라고한, 이 ‘禪衣’는 禮記에 보면, 長江, 淮水, 南楚지역에서는 ‘襪’이라 하였고, 禪衣에 속옷이 있는것은, 趙魏지역에서는 ‘袷衣’라했고, 안이 없는것은 程衣라 하였다. 荊州지역에서는 ‘布襪’라 하였다.

다. 이 '禪衣'는 그 異名이 '襜褕'⁵⁰⁾였다. 이 '襜褕'는 初期에는 婦女子들이 燕居時에 겉옷으로 입으면서 外衣가 되고, 여기에 더하여 領, 袖, 襟, 裾에 花邊飾을 하여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袍'가 되고, 一種의 禮服이 된 것이다.⁵¹⁾ '袍'는 겉옷으로 "사이에 솜을 두어 着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服制"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솜을 두고 안두고는 관계없이 '襜褕'를 대신하여 漢代 男女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着用되면서, 後漢에서는 皇帝以下 百官의 朝服,⁵²⁾ '皇族 命婦의 大禮服인 法定禮服이 되었다.

下級官吏의 경우, 소매가 크고 안이 없는 上衣下裳連接衣인 '禪衣'를 着用하였다.

그러나 이 옷은 後漢末期경부터, 아래로 賤吏小吏에 이르기까지 모두 通制袍인 單(禪)衣가 되고, 깃과 소매에 검은색 테두리를 두른 上衣下裳連接의 深衣形 '中衣'와 함께 朝服이 된다.

이상의 漢代 '禪衣(單衣)', '襜褕', '袍'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上衣下裳連接衣인 深衣制袍는 構成상 下裳부분이 '正裁', '斜裁'인가의 재봉 방법에 따라 着用時 交領의 直裾와 曲裾가 된다.

西漢初期, 男女共用으로 크게 유행하였던 曲裾深衣形袍는 東漢代에 이르면 男子의 경우에는 경시되고,⁵⁴⁾ 直裾형이 보편적으로 着用되어졌고, 女子의 경우에는 변함없이 曲裾와 襜褕形 深衣가 着用되고 있었다.⁵⁵⁾

出土實物을 통해 構成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長沙馬王堆一號漢墓에서 12件的 袍가 出現하였는데, 9件은 曲裾, 3件은 直裾였고, 曲裾袍는 直裾袍

에 비해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고 報告하였다.⁵⁶⁾

이를 중심으로 構成法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圖2>, <圖3>

(1) 曲裾袍 :

- 1) 曲裾, 交領, 右衽이다.
- 2) 綺로 겉을 하고, 絹으로 안을 하여 겹으로 하였다.
- 3) 緣(테두리)은 起毛錦으로 하였다.
- 4) 재봉방법은 袍緣을 後에 加한 것 외에 上衣와 下裳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連接해 만들었고, 안과 겉은 완전히 일치하였다.
- 5) 上衣 : ① 正裁로 바느질하였고, 6片으로 만들었다. 身部分兩片은 넓이가 각각 1幅크기였다. ② 양소매는 각 2片으로 만들었다. 그 중 1片은 넓이가 1幅크기였다. ③ 6片을 이어 붙인 후 다시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재봉하였다. ④ 領口는 琵琶形으로 하였다. ⑤ 袖口는 넓이가 28cm크기였다. 袖筒은 비교적 넓고, 아래 부분은 狐狀으로 되어있다.
- 6) 下裳 : ① 斜裁로 바느질하였고, 4片으로 만들었다. 넓이는 각각 1幅크기였다. ② 着用하면 左側 뒷쪽까지 여며 덮여지게 되어 있었다. ③ 緣飾 : ㉠ 斜裁로 바느질하였다. ㉡ 領緣은 起毛錦 4片으로 만들었다. ㉢ 넓이는 半幅크기였다. ㉣ 外襟下側의 起毛緣은 3片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그 중 2片의 넓이는 1幅크기였고, 1片의 넓이는 半幅크기였다. ㉤ 裏襟의 側邊은 無緣이

50) 周迅外著, (1988), 前掲書, p.54

51) 上掲書, p.203.

52) 朝服은 上衣下裳連接의 深衣制이되, 上下服色을 同一色으로 하였으며 朝服의 服色은 白色이었다. 後漢書, 志第三十, 輿服下.

53) 春秋時代 上衣下裳分離形 衣服制는 그 便宜性과 戰事目的등에 따라 上衣에 좁은 布幅을 連接하고 下裳을 腰部에서 봉합한 深衣形 袍類로 發展하였고 직기와 직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廣幅의 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上衣下裳連接이 아닌 通으로 재단하여 袍를 만든 通制袍類를 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漢代에느시기쯤에 광폭의 직물을 제작할 수 있었는가를 고찰결과에 따라 通制袍제작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4) 吳哲夫編,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上, (台北 裕台公司中華印刷廠), 1986, p.53.

55) 上掲書, 同面

56) 湖南省博物館, 「長沙馬王堆一號漢墓」 p.68, 墓葬年代는 BC 175~145年 사이로 추정함.

었다. ㉞ 袖緣의 넓이와 袖口넓이등은 <表1>를 참고로 하고 모두 起毛錦 3片으로 만들었고, 넓이는 半幅으로 하였다.

(2) 直裾袍: 1) 直裾, 交領, 右衽이다. 2) 紗로 안과 겉을 하여 겹으로 하였다. 안과 겉은 완전히 일치하였다.

3) 上衣와 下裳부분을 만들어 連接하였다.

4) 上衣: ① 正裁로 하였고, 모두 4片으로 하였다.

② 身部分은 2片으로 하였다.

③ 兩袖는 각 1片으로 하였고, 넓이는 모두 1幅크기였다. 4片을 재봉한 후 거드랑이 아래를 이어 붙였다.

④ 領口는 琵琶形이며, 領緣은 斜裁로 2片을 이어붙여 만들었다.

⑤ 袖口넓이는 25cm 크기다. 袖筒은 비교적 크고, 아래는 狐狀이다.

5) 下裳: ① 上半부분은 紗로 겉을 하고, 正裁로 하였다.

② 後身과 안쪽 外襟은 모두 1片으로 만들었고, 넓이는 1幅크기다. 길이와 넓이는 서로 비슷하다.

③ 下半부분의 안쪽 外襟은 비교적 넓은 白紗로 緣하였다. 斜裁다.

④ 着用하면 여며져서 안쪽襟은 左側 거드랑

이 아래 있고, 外襟은 右側 옆에 놓인다. 着用時 아랫모양은 나팔모양이다.

同墓에서는 單衣가 3件이 出土되었는데, 2件은 素紗制이고, 1件은 絹制였다. 그 중 素紗制 一件은 直裾였고, 나머지 2件은 曲裾였다. 單衣는 한겹으로 하였고, 緣은 夾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外襟아래 부분과 아랫부분의 緣內에는 숨이 들어 있었다.

(3) 直裾單衣: 1) 上衣部分은 正裁로 4片으로 만들었고, 각각 1幅 넓이다.

2) 下裳部分 역시 正裁 4片으로 만들었고, 넓이는 각각 半幅 크기였다.

3) 兩袖는 直袖形이고, 袖緣과 領緣은 비교적 좁다. 아랫부분은 無緣이다.

4) 直裾, 交領, 右衽이다.

(4) 曲裾單衣: 1) 單衣, 上衣部分은 正裁 4片으로 만들었고, 넓이는 각각 1幅크기다.

2) 下裳部分은 斜裁 3片으로, 각각 넓이는 1幅크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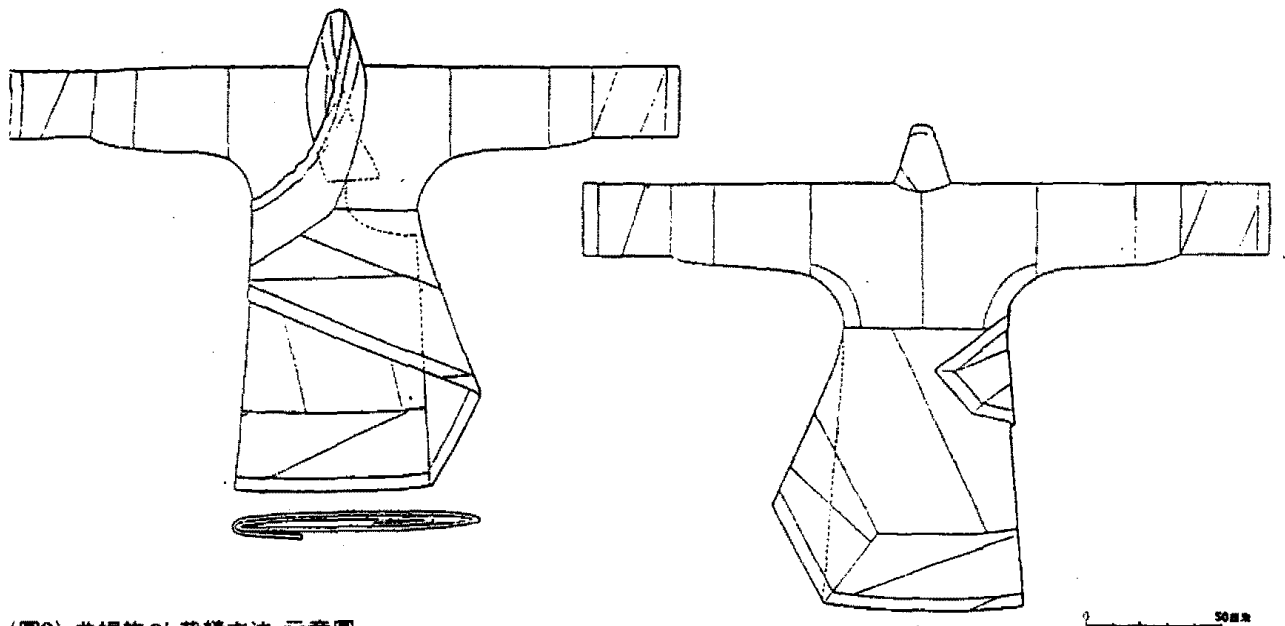
3) 兩袖는 直袖形이다. 袖緣과 領緣은 비교적 좁고 아랫부분은 無緣이다.

4) 曲裾, 交領, 右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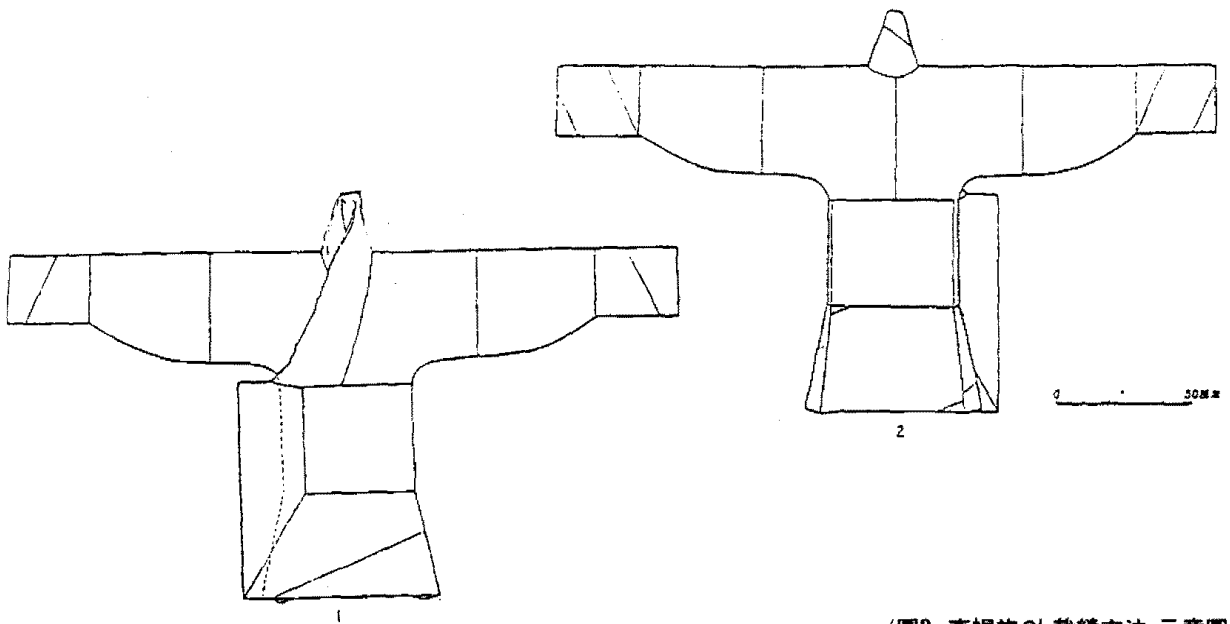
이상은 出土實遺物상으로부터 女性用 曲裾, 直裾袍와 單衣構成에 대한 考察이지만, 漢代 男性用 構成法 역시 大同小異하였으리라 생각된다.

<圖2>는 曲裾袍 構成圖이다.

<圖3>은 直裾袍 構成圖이다.



<圖2> 曲裾袍의 裁縫方法 示意圖



〈圖3. 直裾袍의 裁縫方法 示意圖〉

IV. 漢朝와 楚國服飾文化의 相關性

1. 歷史文化的 背景側面

漢은 中原에 대해 戰國時까지 異族이었던 楚國의 上將軍 劉邦이 세운 나라이다. 이로 인해 長江유역과 그 以南의 中南方地域 楚國의 文化는 漢文化로 代表되고, 뿐만아니라, 開國後 高祖는 B.C. 198년 齊, 楚의 百姓들을 周, 秦의 발흥지였고, 오랜기간 秦地였던 關中지역으로 옮김⁵⁷⁾으로써 이들 지역에 까지 齊, 楚의 文化가 뿌리 내리게 하였으며, 漢, 高祖의 政治的理想은 원칙적으로 皇帝를 頂點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官료제도였다.

그리하여 漢朝建立直後에는 어쩔 수 없는 內外사정으로 建國에 공이 큰 諸將 및 近親一族들에게 諸侯, 列侯의 封國을 分封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는 秦制를 답습한 郡縣制를 기반으로 한 中央집권적 官료제도를 수립하여, 封建制度와 郡縣制度를 절충병용한 郡國制度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치적 현상은 궁극적으로 高祖의 바라는 바가 아니었고, 諸侯王이 분봉된 지역은

30余郡이상으로 皇帝가 속해 있는 15郡에 비해 거대한 것이었다.

이에 高祖는 막강한 異姓諸侯들을 여러가지 이유와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씩 거세하여 高祖 生前에 전부 없애 버렸다. 그리고는 異姓 諸侯가 소유하였던 封地에 劉氏一族의 子弟들을 대신 분봉하였다. 특히 長江유역과 그 以南地域 楚의 故地였던 諸地域을 中心으로 漢初劉氏一家의 分封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漢6年(B.C. 201), 高祖는 楚地域을 楚荊, 2國으로 나누고, 弟인 劉交를 楚王에 封하여, 淮水以北의 3郡地域을 다스리게 하고, '彭城'⁵⁸⁾에 都邑을 정하게 하였다.
- ② 堂兄 劉賈를 荊王으로 封하여 淮水東南4郡地를 다스리게 하고, '吳'⁵⁹⁾에 都邑을 정하게 하고, 東陽, 章邯, 吳 3郡, 53縣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漢11年(B.C. 196) 劉賈가 英布에게 살해되자 12年初, 漢은 '荊'을 '吳'로 고치고 兄의 아들 濞를 吳王으로 封하여 江陵⁶⁰⁾ 江都縣에 都邑을 두게 하였다.

57) 譯民社, 「世界史 年表」, (서울: 譯民社, 1984), p.9.

58) 지금의 江蘇省, 銅山縣

59) 지금의 江蘇省 吳縣

60) 지금의 江蘇省 江都縣

- ③ 아들 肥에게는 山東省一帶, 齊王에 封하고, 都邑을 臨淄⁶¹⁾에 두게 하였다.
- ④ 漢11年(B.C. 198) 淮南王 英布가 반란을 일으키고 피살되자 皇子 劉長을 封하여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 壽春⁶²⁾에 都邑을 정하게 하였다.⁶³⁾

이와같이 高祖는 자신의 一族을 주로 楚의 故地에 封하므로써 楚國의 文化는 보다 더 확산되고 前漢200年을 통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이는 高祖나 劉氏一家의 楚國背景의 文化特性의 分封地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뿐만아니라 200余年間 계속된 前漢王朝는 高祖가 B.C. 206年 開國한 이래 A.D. 8年, 15代만에 폐망하고, 後漢이 일어났는데, 後漢은 14代 獻帝代까지 200余年間 존속하고 魏에 멸망(220) 당하였다. 그런데 後漢을 세운 光武帝 劉秀(B.C. 25~A.D. 57)는 河南省 南陽의 호족 출신으로 前漢6代帝 景帝의 아들, 長沙王 發의 후손이었다. 後漢을 일으킨 光武帝 劉秀를 도와 後漢帝國을 建立하는데 功이 큰 28將軍가운데 13人이 南陽出身⁶⁴⁾이었으며, 後漢은 河南省 洛陽에 都邑을 정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곧 後漢 建立勢力의 背景역시 楚國故地였으며, 이는 後漢에 와서도 楚國文化는 보다 더 성숙하고, 漢을 代表하는 文化로 지속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出土遺物上으로본 服飾制度側面

(1) 曲裾, 直裾, 深衣形袍制

1931年 당시, 山東省 圖書館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 漢畫像石은 모두 92種 329石인데, 河南 30石, 四川 44石, 江蘇2石, 甘肅1石 등으로 分布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개 山東에 있다고 報告⁶⁵⁾하였다. 이상과 같이 山東, 四川, 河南, 江蘇省等地에서 집중적으로 漢代 畫像石墓郡이 出土되는 이유는 앞서 살펴 본 대로 漢朝建立 및 統治勢力의 分封地와 有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漢代 畫像石墓出土 畫像人物들을 보면, 대개 ① 寬袖長袍, ② 寬袖의 무릎 길이, 장단지 길이, 長衣에 下衣로 大口袴, ③ 小袖長袍, ④ 小袖 둔부선 길이, 무릎 길이, 장단지 길이 長衣 交領右衽의 上衣에 下衣로 小口袴를 着用樣으로 나눌 수가 있다.

本研究를 위해 취득가능한 資料범위 내에서 묘장年代 구분이 西·東漢代로 分明한 것 외에, 묘장年代가 불분명하여 단순히 '漢代墓'로 報告된 경우 西漢代로 잠정 포괄시켰으며, 또한 挿圖나 畫像石墓 발굴 보고서를 통해 명백하게 曲, 直裾袍類로 판독이 가능한 것 외에 여덟처리가 畫像人物上으로 불분명한 寬袖, 小袖長衣, 袍類는 일괄적으로 直裾袍類의 범주내에 포함시켜 出土實遺物, 壁畫, 畫像石등을 中心으로 漢의 服飾文化가 楚國服飾文化의 지대한 영향하에 성립되었다고 하는 一見解를 제시하고자 한다.

西漢代 山東, 山西等地에서 出土俑이나 實物, 繪畫등을 통해서 보면 一般的으로 男女 모두 주로 繞襟의 曲裾深衣를 착용하고 있다⁶⁶⁾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出土畫像石을 中心으로 보면, 西漢代 出土畫像石墓는 주로 陝西省, 河南省, 湖南, 湖北省等地로 長江유역 및 그 以南地域과 漢高祖의 開國 지역 및 그 一家의 統治地域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楚國의 故地와 관련이 있다. 西漢代 石刻畫, 혹은 出土遺物, 壁畫上으로 曲裾形 深衣制着裝人物像을 볼 수 있는 墓郡의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다.

- 1) 陝西省 臨潼秦始皇陵⁶⁷⁾
- 2) 陝西省 咸陽, 安陵과 그 附葬墓⁶⁸⁾
- 3) 陝西省 西安, 任家坡墓

61) 지금의 山東省 臨淄縣

62) 지금의 安徽省 壽縣

63) 李春植, (1986), 前掲書, p.238.

64) 上掲書, pp. 313~315

65) 宋伯胤 外1人, 「雙漢畫像石 探索漢代織杼構造」, 文物 1962. 1-12. pp.25~27.

66) 周迅外著, (1988), 前掲書, p.202.

67) 文物, 1975, 11. pp. 1~18.

68) 考古, 1981. 5. pp. 422~425.

- 4) 陝西省 1965年 發現, 咸陽楊家灣墓⁶⁹⁾
- 5) 陝西省 西安 紅床村墓
- 6) 陝西省 考義張家莊墓⁷⁰⁾
- 7) 河南省 南陽軍帳營畫像石墓⁷¹⁾
- 8) 河南省 方城縣城磚鎮, 1982年 發現 畫像石墓²⁾
- 9) 河南省 南陽石溪畫像石墓⁷³⁾
- 10) 河南省 河南省 洛陽密廣出土 空心磚畫⁷⁴⁾
- 11) 湖北省 江陵鳳凰山167號墓⁷⁵⁾
- 12) 湖北省 雲夢大收頭一號墓⁷⁶⁾
- 13) 湖南省 長沙, 1972年發現, B.C. 175~142年 사이 馬王堆一號墓⁷⁷⁾
- 14) 江蘇省 徐州市獅子山兵馬俑坑⁷⁸⁾
- 15) 江蘇省 徐州市 銅山墓

이상의 曲裾形深衣制 着用人物象이나 出土遺物を 볼 수 있는 墓郡外에 다음은 西漢代 出土遺物を 통해서 본 直裾形深衣制 着用人物像을 볼 수 있는 墓郡이다.

- 1) 四川省, 成都 青積城 漢墓出土浮彫稜畫像
- 2) 四川省 彭縣, 義和公社出土 漢畫像石⁷⁹⁾
- 3) 四川省 1973年 發現 宜賓縣 崖墓像石棺⁸⁰⁾

- 4) 四川省 新都縣 雙句地區 畫像石陵⁸¹⁾
- 5) 四川省 成都 動鄉青杠坂出土石陵
- 6) 山東省 1983年發現 嘉祥縣 紙坊鎮 漢畫像石墓
- 7) 山東省 嘉祥縣 洪山出土 漢畫像石墓
- 8) 山東省 嘉祥縣 五老洼發現 漢畫像石墓⁸³⁾
- 9) 山東省 嘉祥縣 武染祠 石刻畫像⁸⁴⁾
- 10) 山東省 1959年發現 安丘 漢畫像石墓⁸⁵⁾
- 11) 山東省 陵縣出土 漢畫像石墓
- 12) 山東省 金鄉朱鮪墓出土 石刻畫像⁸⁶⁾
- 13) 山東省 1967年 發現, 諸城漢 畫像石墓⁸⁷⁾
- 14) 山東省 濟南出土 西漢前期墓
- 15) 山東省 濟寧縣 一組漢畫像墓⁸⁸⁾
- 16) 山東省 嘉祥宋山 發現 漢畫像墓⁸⁹⁾
- 17) 山東省 1969年 發現 濟南無影山 出土 西漢樂舞 翹枝 宴飾俑⁹⁰⁾
- 18) 山東省 晉陽山 慈云寺畫像石
- 19) 山東省 勝縣出土 漢畫像石
- 20) 河南省 方城 東溪鎮畫像石
- 21) 河南省 南昌 東郊漢畫像石
- 22) 河南省 1982年發現 城溪鎮漢畫像石

69) 文物, 1977. 10. pp.10~21
 70) 考古 1960. 7. pp. 40~52
 71) 考古 與文物. 1982. 1. pp. 40~43.
 72) 文物 1984. 3, pp. 38~46.
 73) 考古 與文物. 1982. 1. pp. 33~39.
 74) 沈從文, (1981), 前揭書, p.61
 75) 文物, 1975. 9. pp.1~8; 文物, 1974.6. pp.41~61
 76) 文物 1973. 9. pp.23~26.
 77) 湖南省博物館, 「長沙馬王堆一號漢墓發掘報告」
 78) 文物 1986. 12. pp. 1~16
 79) 考古 1983. pp. 897~903
 80) 文物. 1982. 7.
 81) 文物, 1980. 2. p. 52.
 82) 文物, 1986. 5. pp. 31~41.
 83) 文物, 1982. 5. pp. 71~77.
 84) 沈從文. (1981). 前揭書, p.105.
 85) 文物. 1964. 4. pp. 30~32.
 86) 沈從文 (1981) 前揭書, p.93.
 87) 文物. 1981. 10. pp.14~21.
 88) 文物. 1983. 5. pp. 21~27.
 89) 文物. 1979. 9. pp. 1~6; 文物. 1982. 5. pp. 60~70.
 90) 文物. 1972. 5. pp. 19~23.

- 23) 河南省 鄭州, 新通橋漢空心磚墓⁹¹⁾
- 24) 河南省 1925年發現 洛陽八里台出土 漢畫像石
- 25) 河南省 1966年發現 南洛陽, 軍帳營 漢畫像石⁹²⁾
- 26) 河南省 南陽 鴻門宴空心磚墓 漢畫石墓
- 27) 河南省 1982年發現 南陽 英莊 漢畫石墓⁹⁴⁾
- 28) 河南省 南陽 十里鋪 畫像石墓⁹⁵⁾
- 29) 江蘇省 泗洪重疔 1984年發現 畫像石墓⁹⁶⁾
- 30) 江蘇省 徐州 彘村畫像石墓⁹⁷⁾
- 31) 江蘇省 1919年發現한 新沂互 窰畫像石墓⁹⁸⁾
- 32) 江蘇省 1919年發現한 睢榆金山 漢畫像石墓⁹⁹⁾
- 33) 江蘇省 沛縣 留城鎮出土畫像石墓
- 34) 江蘇省 銅山 洪倭出土畫像石墓
- 35) 遼寧省 遼陽 三通壕 漢畫壁畫¹⁰⁰⁾
- 36) 遼寧省 遼陽 棒台子屯 漢畫壁畫¹⁰¹⁾
- 37) 河北省 賈王古墓¹⁰²⁾
- 38) 陝西省 1982年發現 接德 漢畫像石墓¹⁰³⁾
- 39) 湖南省 長沙 馬王堆一號漢墓¹⁰⁴⁾

이들 畫像石墓 人物畫에는 直裾形深衣袍外에 무릎길이 交領右衽 直裾制短深衣에 大口袴를 着用한 下級官吏나 從者들의 着裝人物象을 長袍類着用 人物像과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 沈¹⁰⁵⁾은 이와같은

樣式의 短衣制와 大口袴 着裝樣式 역시 楚國의 舊式服制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西漢代에 一般的으로 着用되어졌다.

다음은 東漢代 曲裾深衣袍를 着用한 人物像을 볼 수 있는 墓郡類이다.

- 1) 四川省 1976年發現 成都出土 東漢畫像石¹⁰⁶⁾
- 2) 四川省 1982年發現, 涪陵東漢崖墓¹⁰⁷⁾
- 3) 四川省 成都 楊子山二號 漢墓出土畫像石¹⁰⁸⁾
- 4) 四川省 成都 昭賞寺 1966年發現 漢墓出土畫像石墓 東漢 A.D. 147~189)¹⁰⁹⁾
- 5) 四川省 成都 曾家包, 漢畫像石墓¹¹⁰⁾
- 6) 四川省 彭縣出土, 東漢畫像石墓
- 7) 四川省 成都 東漢羊子山出土俑
- 8) 四川省 成都 天迴山東出土墓
- 9) 四川省 成都 水豐 東漢墓
- 10) 河南省 1976年發現, 方城樂汝漢畫像石墓¹¹¹⁾

다음은 東漢代出土遺物上으로 直裾形深衣制袍着裝 人物像을 볼 수 있는 墓郡類이다.

- 1) 山東省 長清 A.D. 90年前後 東漢濟北王 劉壽 墓로 추정하는 肥城 孝堂山 石祠畫像¹¹²⁾

91) 文物. 1972. 10. pp. 41~47.

92) 沈從文 (1981) 前揭書 p.74.

93) 考古與文物 1982. 1. pp. 40~43.

94) 文物. 1984. 3. pp. 23~37.

95) 文物 1986. 4. pp. 48~63.

96) 考古 1986. 7. pp. 614~622.

97) 考古 1980. 4.

98) 考古. 1985. 7. pp. 614~618.

99) 考古. 1985. 9. pp. 793~798.

100) 考古學報 1975. 1. pp. 119~126.

101) 考古學報 1960. 1. pp.20~3.

102) 考古學報 1960. 3.

103) 文物. 1983. 5. pp.28~31.

104) 湖南省博物館, 「長沙馬王堆一號 漢墓發掘報告」

105) 沈從文 (1981), 前揭書, p.59.

106) 文物與考古, 1982. 1. pp 44~45.

107) 考古, 1984. 12. pp. 1085~1091.

108) 考古通凡. 1955. 5. pp. 24~7.

109) 考古. 1984. 1.

110) 文物. 1981. 10. pp. 25~32.

111) 文物. 1980. 3. pp. 69~72.

112) 文物. 1984. 8. pp. 34~39.

- 2) 山東省 淄博張莊, 1984年發現 畫像石墓¹¹³⁾
 - 3) 山東省 沂南東漢後期石刻墓¹¹⁴⁾
 - 4) 浙江省 海鹽 長安鎮, 1973年發現 畫像石墓¹¹⁵⁾
 - 5) 江蘇省 邳縣, 1980年出土 A.D. 150~151년사이 2000石官吏 彭城相繆字墓¹¹⁶⁾
 - 6) 江蘇省 邳縣 1981年出土 百山故子 A.D 151~175年사이 畫像石墓¹¹⁷⁾
 - 7) 江蘇省 高淳縣 1974年發現 畫像石墓¹¹⁸⁾
 - 8) 江蘇省 銅山縣, 青山泉紡織畫像石¹¹⁹⁾
 - 9) 江蘇省 銅山縣 青山泉百集畫像石¹²⁰⁾
 - 10) 山東省 泗洪, 1974年發現 古廟畫像石¹²¹⁾
 - 11) 河南省 1959年發現 密縣打虎亭漢代畫像石墓¹²²⁾
 - 12) 河南省 1979年發現 唐河縣 石灰窰村畫像石墓¹²³⁾
 - 13) 河北省 望都 第一號東漢墓
 - 14) 陝西省 米脂 A.D. 107年 畫像石墓¹²⁴⁾
 - 15) 陝西省 1972年出現 A.D. 98~107年사이 接德縣延安盆¹²⁵⁾
 - 16) 遼寧省 遼寧 1931年發現 大連市營城子墓出土 壁畫
 - 17) 甘肅省 1957年發現 武威磨咀子三座漢墓¹²⁶⁾
- 本考察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漢代畫像石이나 出土遺物은 주로 1950年代 이후 發現資料를 인용한 것인데, 역시 長江유역 및 그以南地域의 故楚國의 故地였고, 高祖의 出身地이며, 劉氏一家의 分封地와

관계가 큰 山東 17, 河南 16, 江蘇 14, 四川 14, 陝西 9 등의 順으로 주로 山東 河南·江蘇·四川等地에서 多量 出土되었다.

畫像石이나 出土遺物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曲裾形深衣制인 楚國特性的 服制는 西漢代에 보편적으로 着用되어졌었다. 이들 制度는 前章에서 살펴 본 楚國 故地 出土 服飾製圖와 同類形 制度이며, 이는 齊, 魯地域에서 당시 一般的으로 着用되어졌던 寬袍大袖制와는 다른 制度로 沈¹²⁷⁾도 이와같은 사실들은 특히 漢代文化의 각 부분에서 楚文化 影響의 一斷面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孫¹²⁸⁾도 같은 見解를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江陵馬山一號楚墓出土 直裾, 深衣形袍制의 構成방법과 楚國의 故地였던 長沙, 馬王堆一號 西漢代墓出土 實物 및 着裝畫의 曲裾와 直裾深衣形袍의 構成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더욱 명백하다. 뿐만아니라 <圖2>에서 보는 것과 같은 展開圖는 本考察을 위해 취득하였던 壁畫와 畫像人物의 着用袍와 出土俑들의 着用服制의 構成方法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資料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婦女髮樣 側面

漢代 婦女子들은 一般的으로 六筭六珈制度에

113) 考古. 1986. 8. pp. 717~725.

114) 南京博物館「浙南古畫石墓, 發掘報告」1959. 9.

115) 文物. 1984. 3. pp.47~53.

116) 文物. 1984. 8. pp. 27~29.

117) 文物. 1986. 5. pp. 17~29.

118) 文物. 1983. 4. pp. 36~39.

119) 文物. 1980. 2. pp. 93~94.

120) 考古. 1986. 2. pp. 137~151.

121) 文物. 1986. 4. pp. 40~47.

122) 文物. 1972. 10. pp. 49~61.

123) 文物. 1982. 5. pp. 79~84.

124) 文物. 1972. 3. pp. 69~73.

125) 考古. 1983. 3. pp. 233~237.

126) 文物. 1972. 12. pp. 9~23.

127) 沈從文. (1981). 前揭書. p.27.

128) 孫机. 「深衣與楚服」, 考古與文物. 1982. 1. p. 24.

따라 6釵를 사용하였는데,¹²⁹⁾ 이는 周代 6筭六珈制度를 응용한 것이라고¹³⁰⁾ 하였다. 出土遺物상으로 보면, 六筭六珈制度는 黃君孟婦女墓出土 婦人髮飾¹³¹⁾과 漢代 山東省 金鄉朱鮪墓出土 婦女髮飾¹³²⁾ 山東省 浙南漢墓出土 婦女髮飾,¹³³⁾ 河南省 密縣東漢墓出土 婦女髮飾¹³⁴⁾에서 볼 수가 있고, 北宋代에도 이와 같은 婦女髮飾이 있었고¹³⁵⁾ 現 苗族主居住地인 貴州省에서 出土된 南朝代出土實物도 同一類形制이며,¹³⁶⁾ 淸初苗緜族의 婦女髮飾도 同制이며,¹³⁷⁾ 現在 苗族緜族 婦女髮飾도 同類形으로¹³⁸⁾ 이 역시 漢의 服飾文化가 楚國服飾文化의 지대한 영향하에 성립되었다고하는 一面을 제시해주는 資料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3) 佩綬, 蔽膝, 圍裙(圍腰) 着用側面

현 중국내 小數民族中 苗, 搖族은, 上古代부터 長江 南方에 居住해 왔으며 中原에 대해 異民族이었다.¹³⁹⁾

이들은 九黎, 三苗등으로 불리어오다가¹⁴⁰⁾ 殷代에 이르면 '荊'으로 불리었고¹⁴¹⁾ 뒤에 楚가 되었다.¹⁴²⁾ 楚에서 현재의 苗가 분리되었으므로¹⁴³⁾ 이로보면 九黎, 三苗, 荊, 楚, 苗는 同一民族의 異名으로 太古 이래

長江以南居住 一部族名으로 現在는 苗, ■ 등의 小數民族으로 代表되고 있다. 現 中國內 小數民族中 一族인 苗族은 自部族 民族固有의 圍裙(圍腰)¹⁴⁴⁾制度의 服制관습을 갖고 있는데, 이 制度는 문헌 기록상으로는 楚代에도 있었던 풍속이며 着用方法은 地域에 따라 腰間 後面에 裝飾目的으로 着用하거나, 腰部前後를 감싸고 둘러입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苗族服飾」全篇을 통한 고찰 결과에 의하면,¹⁴⁶⁾ 製作方法은 ① 五色의 色絲로 織造한 경우 ② 布製에 花飾을 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形制는 腰帶에, 長方形의 대퇴부길이, 무릎길이, 발목길이, 넓이30~50cm정도의 色絲織造物, 布製花飾物을 부착하여 腰部前 後面에 着用하도록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現在 苗族들이 圍裙 圍腰라 하는 것으로 楚·漢以來, 中國 古代服飾에서 佩綬, 蔽膝, 圍裙(圍腰)制度和 同制이다.

楚國의 故地, 湖北省 江陵雨台山出土武士¹⁴⁷⁾와 河南省 信陽楚二號墓出土木俑이 佩玉飾¹⁴⁸⁾을 하였다. 이와같이 戰國代, 瑞玉과 함께 色絲를 엮어 짠 것을 裝飾用으로 帶에 佩用하여 앞중심·양옆등에 佩用하였다. 뿐만아니라, 夏, 商, 周代까지 사용하였

129) 後漢書.

130) 沈從文,(1981), 前揭書, p.94.

131) 河南省 信陽地區 文管會, 「春秋早期, 黃郡孟夫婦墓 發掘報告」, 考古, 1984, 4, pp. 302~332.

132) 沈從文,(1981), 前揭書, p.93.

133) 山東省 浙南 古畫像墓發掘報告

134) 文物. 1972, 10. p.57.

135) 沈從文,(1981), 前揭書, p.101.

136) 周迅外著, (1988), 前揭書, p.105.

137) 皇清職貢圖, 圖版, 10. 11. 32. 38. 49. 50. 32. 53. 55. 81.

138) 匡世昭外著, 「中國苗族服飾」, (北京: 民族出版社 1985), pp. 100~103.

139) 林惠祥, (1990), 前揭書, p.106.

140) 上揭書: 同面

141) 上揭書, p.11.

142) 任乃強著 「四川上古史新探」(四川: 四川人民出版社, 1986), p.98. 「…荊始改號曰楚」

143) 林惠祥 (1990) 前揭書, p.105. 「…九黎爲郎, 現在之苗」

144) 王輔世著 「中國民族服飾」, 沈從之著, 「中國古代服飾研究」, 北京民族文化宮編, 「中國苗族服飾」에서도 全篇을 통해 腰部前面, 혹은 腰部주위에 着用한 服裝類를 圍裙(圍腰)으로 表記하고 있다.

145) 韓養民外著, 「秦漢風俗」,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p.42.

146) 民族文化宮編, 「中國苗族服飾」, (北京: 民族出版社 1985), pp. 19~207.

147) 周迅外著, (1988), 前揭書, p. 299

148) 河南省, 文物研究所, 「信陽楚墓」, (北京: 文物出版社, 1986.)

던 ‘鞞’의 制度¹⁴⁹⁾가 東周代에는 계속되는 戰爭中의 兵器가 아니므로 없애고¹⁵⁰⁾ 대신 糸祖를 연결하여 ‘緣’이라 하여 着用하였던 것이 漢代에 와서 ‘綬’¹⁵¹⁾가 되고, 彩色絲를 엮어짜고 色으로 身分의 귀천과 品位를 가렸다. ‘綬’는 ‘大綬’와 ‘小綬’의 구별이 있었으며, 小綬는 左右허리에, 漢代의 大綬는 등뒤에 着用하였다. 대개 길이 80~100cm 넓이, 40cm 크기였다. 이는 곧 楚國·漢, 現在의 苗族으로 이어진 服制 상의 佩用飾物制度의 一種으로 楚國文化와 漢文化의 相關성을 볼 수 있는 一側面이다.

또한 戰國代, 江淮地域에서 ‘褱’라 하였고, 齊, 魯地域에서 ‘裋’이라 하였고, 魏·宋·楚地域에서는 ‘大巾’ 혹은 ‘巨巾’, 關東, 關西地域에서 ‘蔽膝’¹⁵²⁾ 이라고 하였던 앞가리개類의 佩飾物은 오늘날의 ‘圍裙’과 같은 것¹⁵³⁾이라 하였는데, 이 ‘蔽膝’은 漢代 服名이고, 그 以前 朝·祭服에서는 ‘鞞’, ‘蔽’등으로 着用되어졌던 同一形制 異名이며, 楚國特性的 服制가 五色彩色絲로 엮어짜 漢代 法定冠服制에서는 ‘綬’로 制度化하고, 常服에서는 布로 만들어 ‘蔽膝’이 되고, 오늘날 苗族의 民族服에서 ‘圍裙’ (圍腰)으로 그 遺制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楚國 服制와 漢朝服制와의 相關성의 一側面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結論 및 要約

1. 지금부터 4,000年前, 太古以來 中國의 長江유역 및 그 以南에 居住하여 왔던 居民들은 中原에 대해 異民族이었으며, ‘九黎’, ‘三苗’등으로 불리워오던 이들은 殷代에 이르면 ‘荊’으로 불리었고 뒤에는 ‘楚’가 되었다.

春秋末年에서 戰國中期까지 사이에 楚는 가장 強大하고 廣大한 領土를 소유한 異民族建立南方王朝였다. 그러나 戰國末 B.C. 740~223년까지 400余年間 지속되어오던 楚가 秦에 의해 멸망당하였

다.

그러나 10余年 뒤 楚國故地에서 일어난 楚國의 舊勢力에 의해, B.C. 206年 秦은 통일 15年 뒤 다시 楚國勢力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楚國의 將軍이었던 劉邦에 의해 中原은 再統一되고, 이후 ‘楚國的인 것의 主體’, ‘楚國文化’가 ‘漢의 文化’로 代表되어 前漢200年, 後漢200年 통합 400余年의 긴 세월 동안 東·西·南·北 주변 諸國문화의 융합과 변모, 동화, 영향을 끼치면서 ‘漢의 文化’로 代表된 楚國의 南方特性的文化를 지속 성장시켰다.

2. 또한 開國後 初期에 高祖는 B.C. 198年, 齊, 楚國地域의 百姓들을 오랜동안 周·秦의 발흥지였고, 秦의 요새지였던 關中으로 옮김으로 인해¹⁵⁴⁾ 이들 지역에까지 楚의 文化는 확산되고 뿌리내리게 하였으며, 뿐만아니라 高祖는 生前에 劉氏一家로 諸侯王을 分封하여 前漢 200年間을 통해 楚國勢力의 확대 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後韓에 와서도, 後漢建立勢力의 背景 역시 楚國勢力이 主가 되어 楚의 文化가 漢의 文化로 지속 성장하고 代表되게 하였다.

3. 이상과 같은 歷史文化的 背景 위에서, 漢의 服飾文化는 楚國의 南方特性的 服飾文化의 基礎위에 直裾, 曲裾, 深衣形 大袖, 交領, 右衽, 長袍, 大·小袖, 屯부선, 무릎, 장단지길이의 長衣에, 下衣로 大口袴 着用을 基本으로 하여 後漢에 와서는 ‘袍’制의 深衣形 服制가 皇帝以下 百官의 朝服, 皇后以下 命婦의 祭朝禮服의 法定 冠服制의 根幹을 이루게 되었다.

4. 漢代 婦女髮樣에 楚國特性的 6筓釵飾 특성을 보여 楚와 漢의 婦女髮樣 側面的 文化的 相關성을 보여 주었다.

5. 漢代法定冠服制에서 制度化한 ‘綬’制度和 常服에서 ‘蔽膝’制度는 九黎, 三苗→荊→楚→現在 少數民族 苗·搖族등으로 이어진 苗·搖族의 民族服飾

149) 後漢書 第三十. 輿服下.

150) 上揭書 同面

151) 上揭書, 同面

152) 〈方言〉「江淮之間謂之褱, 齊魯之郊 謂之裋, 魏宋楚之間 謂之大巾, 自關東西謂之蔽膝…」

153) 洙嘉王路 「中國古代衣·食·住行」, 北京: 北京出版社, 1988, p.30.

154) 譯民社 「世界史年表」(1984). 前揭書. p.9.

에서 그 遺習을 볼 수 있는, 圍裙(圍腰) 등의 服裝制度가 漢에서 制度化된 것으로, 楚와 漢의 服飾文化 相關性의 一側面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中國書〉

- 穆鳳林「中國通史」
- 林惠祥,「中國民族史」,上海文藝成古今出版社, 1990.
- 張清俊,「湖北隨縣 曾侯2墓」,「往來成古今鈔」,台北:錦繡出版有限公社, 1990.
- 河南省文物研究所「信陽楚墓」,北京:文物出版社, 1986.
- 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江陵馬山一號楚墓」北京:文物出版社 1985.
- 周迅外著「中國歷代婦女裝飾」台北,南天書局有限公司, 1988. 9.
-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北京,中國劇出版社, 1983.
- 內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香港:高務印書會館, 1981.
- 王桐會,「中國民族史」
- 烏居龍藏,「折南古畫像石墓發掘報告」中國:文化部文物管理處, 1956.
- 呂思勉,「中國民族史」香港:高務印書館, 1978.
- 傅恒撰,「皇清職貢圖1-9卷」乾隆 16.
- 王宇清,「中國服飾史綱」,台北:中華大全印會,

1969.

- 吳鐵符著,「楚國民族述略」,湖北:湖北人民出版社, 1984.

〈中國論文〉

- 河南信陽地區交管會,「春秋早期黃君孟夫婦墓發掘報告」,考古, 1984.
- 郭沫若,「信陽楚墓的年代與國別」文物 1958,1
- 中山大學學部「望山一號墓 江陵昭國墓」若干問題的探討, 1977.1.
- 侯良,「楚與西漢婦女服飾之承襲性小議」,「中國古代服飾 國際學術議會論文」1991. 7.
- 文物參考資料,「信陽長台 發掘座戰國大墓」1957. 9.
- 宋伯風外 1人「雙 畫像石探索漢代織機構造」文物 1962. 1-12.
- 朴帆,「探衣與楚服」,考古與文物, 1982. 1.
- 文物, 1957-1989, 北京:文物出版社 1957-1989.

〈역서〉

- 傳樂戰外著 辛喆夏譯,「中國通史上」서울, 宇鍾社, 1974.

〈國內書〉

- 李春植,「中國古代史의 展開」,서울:新書苑, 1986.
- 譯民社,「世界史年志」서울:譯民社, 1984.